

## 4.19 혁명 수업안 검토

2020년 4월 8일

성신여대 홍석률

인상적인 수업안을 만들어주신 오도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오도화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두 가지 사항(1. 중고등학생들의 조직된 시위 모습 자료, 2. 4월혁명에 참여한 학생들의 4.19 이후의 삶)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수업안에 대한 저의 논평을 전달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서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겠습니다.

### I. 중고등학생들의 시위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

대구학생들의 2.28시위와 부산 데레사여고의 시위 두 사례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2.28 시위는 4월혁명의 포문을 연 첫 시위이고, 당시 고등학생들의 고민과 처지, 정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의 등교, 부정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 교사 및 교육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등등을 잘 볼 수 있는 사례이지요. 데레사 여고생의 시위는 당시 여학생들의 시위 중에 대표적이라 선정하였습니다.

두 시위의 구체적 상황은 '일지'와 4월혁명 직후에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이 직접 쓴 수기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지는 201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편찬한 『4월혁명 사료총집』 1권에 수록된 것으로 당시 발행되던 신문과 잡지, 각종 서사기, 수기 등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편년체 역사서술 방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수기는 동아일보 이강현 기자가 4월혁명 직후에 시위에 참여한 각 학교 및 대학 학생회에 의뢰해서 직접 원고를 받아 편찬한 것입니다. 항쟁 주체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회고한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에 학생 신분으로 직접 정리한 기록입니다.

#### 1. 2.28 대구 고등학교 학생시위

##### 1) 일지

출전: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4월혁명사료총집』 1책(일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1960. 2. 28

## 시위상황

개요: 28일 오후 대구 시내 곳곳에서 경북고등학교 · 대구고등학교 · 경북사범대부속 고등학교 ·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의 학생 1,200여 명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일요일인 28일 대구에는 민주당 부통령후보 장면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민주당 강연회 참석을 막기 위해 대구시내 대부분의 학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지시했는데 명목은 각양각색이었다. 대구여고는 졸업생 송별회와 무용발표회, 경북고는 영화관람, 경상중학교는 졸업식 연습, 대구상업고등학교는 졸업생 송별회와 원서제출 등을 들었다. 또 제일여자중학교는 임시수업을, 대구고는 토끼사냥, 경북사대부고는 임시시험, 대구공업고등학교는 학교 자체행사, 각 국민학교는 보충수업 등의 이유로 학생을 등교하게 했다. 학생 뿐 아니라 이날 대구시내 공장과 회사도 직원들을 출근시켰다.<sup>1)</sup>

그러나 학생들은 오후 1시경부터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면서 대구 시내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경찰과 충돌해 약 200명이 연행되었다. 대구 경찰은 오후 2시경부터 비상경계를 실시하여 도청, 경찰국 주위 일대에 새끼줄을 치고 교통을 차단했다. 또한 소집된 정복무장경찰관과 사복경찰관들을 시내 각 요소에 배치하여 시위 학생들을 발견하는 대로 연행했다. 오후 1시 30분경부터 연행되기 시작한 학생들은 경찰국에 120여 명, 대구경찰서에 약 50명, 남대구경찰서에 80명(여학생 30명 포함)이었다. 경찰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사이에 주모자로 알려진 학생 수 명만을 제외하고 모두 학교당국에 인계 석방했다. 경북도지사는 학생시위 사건 수습은 될 수 있는대로 학원당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밤늦은 시각에 도지사관사 앞에서 연행된 경북사대부고 학생 4명과 시위 주도자로 알려진 경북고 이대우 외 수명의 학생도 밤 10시경 훈계 · 방면하였다.<sup>2)</sup>

### [대구]

1) 안동일·홍기범 공저, 『기적과 환상』, 영신문화사, 1960, 68-69쪽

2) 『대구일보』 1960. 2. 29 ; 『동아일보』 1960. 2. 29 조3면

### 경북고등학교 학생 800여명, 학원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

2월 25일, 경북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원래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학기말 시험을 28일에 일부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3월 3일부터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학교 측의 시험일자 변경 발표에 학생들은 “준비관계로 곤란하다”, “무슨 이유로 변경하느냐”, “그날이 민주당 강연회가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며 즉시 학생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26일 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우(2학년)는 ‘2.28일 하오 1시의 등교에 관한 건’으로 지도위원 선생에게 학생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지도위원은 결재를 학생과장에게 미뤘다. 학생과장은 학생위원회 소집을 거부하며 학생들에게 이유는 “뻔하지 않느냐”라고 토를 달았다. 교감 또한 소집이유가 없다고 불허하였다. 그러나 26일 오후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생위원회를 소집하고 학교 당국에 항의하였다.

1. 일단 3월 3일로 결정 발표된 시험 일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관례상 부당하다.
2. 시험 준비 기간의 단축으로 응시에 지장 있다.
3. 하필이면 학생들에게 휴양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요일에 실시코자 하는가.
4. 민주당의 강연회건 어디 강연회건 정치관계 때문에 피해입고 싶지 않다.
5. 어떤 정당의 강연회를 듣건 학생자신의 자유가 아니냐.<sup>3)</sup>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등교한다는 전제 밑에 등교조건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점 같은 것은 토론이 될 수 있으되 등교여부를 토론하는 것은 안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학생 대의원들은 학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요일에 시험은 보지 않으나(시험은 원래대로 3월 3일) 월요일 수업을 당겨 등교하고 월요일은 휴식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 측에서도 승낙하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27일 갑자기 절충안을 폐기하고 일요일 시험을 재발표했다.<sup>4)</sup> 학생들은 “학생위원회를 무시한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이는 학생들 사이에 결정적으로 시위론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협조하는 학생위원회는 필요없다며 학생위원회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반발하자 당황한 학교 측은 시험을 그만두고 28일 오후 1시까지 등교해 영화감상을 하자며 무마하였지만 학생들의 흥분은 더욱 고조되고 시위론이 격화되었다.

일부 교사는 도 당국에서 일요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의 명단을 가져오라고 하였지만 사제의 정을 생각해 등교 거부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보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sup>5)</sup>

3) 남옥, 「2.28대구학생데모사건의 진상」, 『새벽』1960월 4월호, 새벽사, 94-99쪽

4) 경북고등학교 교지는 학교 당국이 28일에 다시 시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때가 26일 종례시간이었다고 밝혔다(「2.28경과상보」, 『경맥』7호, 경북고등학교, 1960(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28민주화운동사』:자료집 II, 2000, 231쪽 재인용)).

5) 「2.28경과상보」, 『경맥』7호, 경북고등학교, 1960(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32-233쪽 재인용)

2월 27일 학생부위원장 이대우는 하교 후 지도급 학생들과 만나 시위를 계획하는 한편 공납금 미불로 퇴교한 하청일(3학년)에게 결의문 초안을 작성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대우는 27일 갑작스레 일요일 등교를 발표한 대구고등학교 · 경북사대부속 고등학교의 대표들과 자신의 집에서 밤을 새워가며 시위 결행의 여부를 토의하였다.

이들은 “①2월 28일 하오 1시를 기해 일제히 쫓겨나 자유를 전취하기 위한 피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다, ②데모한 학생을 구속하거나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적 조치가 있을 때는 우리는 데모를 계속할 것이며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한국의 전 백만 학도에게 호소한다”라고 결의하였다.<sup>6)</sup>

민주당 부통령후보 장면의 연설이 예정되었던 28일 일요일, 영화 관람을 이유로 등교지시를 받은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은 12시 50분 학교교정에 모였다. 이대우는 시위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결의한 다음 결의문을 정식으로 채택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구고등학교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경북고를 찾아와 “우리는 이미 교문을 나섰다”라고 함으로써 경북고 학생들 사이에 시위에 대한 기운을 북돋았다. 이에 경북고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이기 시작하며 “학생위원장은 뭇하는 놈이고!”를 부르짖었다.

이대우가 선두가 된 학생운영위원들은 두터운 두루마리 결의문을 갖고 조희단에 올라 “일요일날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폐습을 시정시키고 학원 내의 자유를 찾기 위해 학원 내의 여론을 사회에 반영시키자”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교사들의 제지와 시간이 없다는 학생들의 외침에 결의문은 ⅓정도 건너뛴 채 낭독됐다. 누군가가 단상에 뛰어 올라 “우리의 뜻을 사회에 알리자. (중략) 코스는 반월당 · 역전! 구호는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라고 외쳤다. 그러자 경북고등학교 1,2학년생 약 800명은 오후 1시경 교사들의 제지를 무릅쓰고 교문을 나와 거리로 나갔다.<sup>7)</sup>

### 경북고등학교 결의문

인류역사에 이런 강압적이고 황포한 처사가 있었던가.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디 그 어느 역사책 속에 끼어 있었던가?

오늘은 바야흐로 주위에 공장연기를 날리지 않고 6일 동안 갖가지 삶에 허덕이다 모이고 모인 피로를 풀 날이요, 내일의 삶을 위해, 투쟁을 위해, 그 정리를 하

6) 이강현 편, 『민주혁명의 발자취』, 정음사, 1960, 19쪽 : 동아일보도 이대우가 27일 대구고등학교 학생 간부들을 만나 28일 오후 1시 반월당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을 대구고교·경북고교와 완전 합의했다고 전했다(『동아일보』1960. 3. 7 3면). 그러나 또 다른 기록은 학생들이 사후처리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전원 시위 단념상태로 취침했으며 구체적인 확약없이 다음날인 28일 서로 등교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남옥, 96쪽). 한편 서울신문은 이대우가 25일 민주당 경북도당간부로부터 민주당 강연회가 열리는 28일 오후 2시경을 기해서 데모를 일으키라는 사주를 받았으며 이대우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고 보도하였다(『서울신문』1960. 3. 1).

7) 동아일보와 대구신문 등의 신문 매체는 800여명의 학생이 시위에 가담했다고 보도했고, 남옥은 700명이 교문을 나선 것으로 기술했다(남옥, 97쪽).

는 신성한 휴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의 휴일마저 빼앗길 운명에 처해있다. 우리는 1주일 동안 하루의 휴일을 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억지의 말도 아니고 꾸민 말도 아니고 인간의 근세 몇 천년 동안 쭉 계속해서 내려온 관습이요, 인간이 생존해 나가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위해 만든 휴일을 빼앗기고 피로에 쓰러져 죽어야만 하나,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장차 동아(東亞)를 짊어지고 나갈 곳곳한 역군이요, 사회악에 물들지 않은 백합같이 순결한 청춘이요, 학도이다.

우리 백만 학도는 지금 이 시각에도 타골의 시(詩)를 잊지 않고 있다. ‘그 촛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큰 꿈을 안고 자라나는 우리가 현 성인사회의 정치놀음에 일체 관계할 리도 만무하고 학문 습득에 시달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러나 이번 일은 정치에 관계없이 주위에 자극받지 않은 책냄새, 땀냄새, 촛불 꺼মে게 앉은 순결한 이성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일장의 궤기를 하려한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 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릴 학도요, 조국을 괴뢰가 짓밟으려 하면 조국의 수호신으로 가버릴 학도이다.

이 민족애의 조국애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 주려는가?

우리는 끝까지 이번 처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을 때까지 싸우려다.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우의 일각까지 최후의 1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려다.

출처 : 『慶脈』7호, 경북고등학교, 1960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28민주화운동사』:자료집 II, 2000, 187쪽 재인용)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은 삼덕동우체국 앞에서 수성교서의 선거강연장으로 가던 민주당 부통령후보 장면의 택시와 만나기도 했다.<sup>8)</sup> 반월당 앞에서 학생들은 도 학무과 담당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뜻을 알릴 목적 하에 도청으로 방향을 틀었다. 앞장섰던 이들

8) 언론 중 대구일보만이 학생들이 장면과 조우하였다고 보도하였다(『대구일보』1960. 2. 29). 또한 장면은 후일 경북고등학교 교지에 쓴 글에서 강연장인 수성천변으로 향하던 중 경북고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으며 학생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손을 흔들어 응답했다고 밝혔다(장면, 「2.28은 정의의 본」, 『경맥』7호, 1960(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08쪽 재인용)).

중 200여명은 도중에 경찰과 충돌해가면서 도청마당까지 이르렀다.<sup>9)</sup> 학생들은 도지사실을 향하여 대열을 짓고 이동했으며 “경북도지사와 경찰국장은 나와 달라”고 요구했다.<sup>10)</sup> 학생의 요구에 응해 오임근 경북도지사와 경찰간부가 학생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나왔으나 이대우는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요지로 된 결의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이대우는 정사복 경찰의 출동으로 낭독을 채 마치지 못했다. 이때 학생 일부는 도청 정원 쪽으로 돌맹이를 던졌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돌을 던지지 마라”는 함성을 지르자 투석을 즉시 중지하였다.<sup>11)</sup>

이후 학생들은 모두 모자를 벗고 “역으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도청 정문으로 쏟아져 나왔다. 정사복 경찰들은 문을 닫고 학생들을 제지하려고 했으나 문을 박차고 나오는 학생들로 인해 문이 열어지고 아수라장이 되어 학생들의 책과 노트 등이 정문 앞 길바닥에 뒹굴었다. 좁은 도청 정문에서 학생 30-40명이 경찰에 체포됐고<sup>12)</sup>, 학생이 다시 대열을 지어가려는 것을 경찰이 추격하여 그 중 100여 명을 연행하였다. 경찰의 손을 벗어난 약 60여 명의 학생들은 다시 대구시청 광장 앞으로 집결하였으나 경찰의 출동으로 대부분이 잡히고 대열은 흩어졌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본 대열에서 뒤떨어졌던 약 40여 명의 학생들은 1시 30분경 다시 도지사 관사 앞에서 스크럼을 짜 시위했다. 이 과정에서 오임근 경북도지사는 손바닥에 경상을 입었다. 학생들은 도지사관사에서 대구지구 16헌병대까지 시위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역시 경찰에 연행되었다.<sup>13)</sup> 이날 시위로 경북고 학생 약 120명 정도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한편 이날 밤 9시경에는 백차에 실린 학생 두 명이 시내를 돌면서 마이크로 “경북고등학교 학생 시위에 참가했어도 당국에서 관대히 처분하니 안심하고 내일 등교하라”는 가두 선무 방송을 하기도 했다.<sup>14)</sup>

## 대구고등학교 학생, 학원의 정치도구화에 반발하여 시위

대구고등학교 당국은 27일 아침에 학생들에게 토끼사냥(혹은 운동시합)을 이유로 일요일인 28일 등교할 것을 지시했다.<sup>15)</sup> 대구고 학생위원장은 교감을 찾아가 공휴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항의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학생과장은 도리어 “영웅도

9) 대구일보는 경북도청 앞에 당도한 학생인원이 약 300명(동아일보는 200명)이었다고 보도하였다(『대구일보』 1960. 2. 29). 반면 경북고등학교 교지와 조화영의 글은 이때의 인원이 600여 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2.28경과상보』, 『경맥』7호, 경북고등학교, 1960(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35-236쪽 재인용 ; 조화영 편, 『4월혁명투쟁사』, 국제출판사, 1960, 20쪽).

10) 다른 기록은 학생들이 경찰국장이 아닌 문화국장의 출동을 요청했다고 기술하였다(남욱, 97쪽).

11) 『2.28경과상보』, 『경맥』7호, 경북고등학교, 1960(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36쪽 재인용) : 이강현 편, 22-23쪽

12) 안동일·홍기범 공저, 65쪽

13) 『대구일보』1960. 2. 29 ; 『동아일보』1960. 3. 1 조3면, 1960. 3. 7 3면 ; 조화영 편, 15-26쪽 ; 김재희 편, 『靑春義血』, 호남문화사, 1960, 61쪽 ; 이강현 편, 11-26쪽

14) 『대구일보』1960. 2. 29 ; 『동아일보』1960. 2. 29 조3면

15) 대구고등학교에서 경북고등학교보다 먼저 학생들의 일요일 등교를 지시했다는 서술이 있다(지현모 편, 『마산의 흔』, 한국국사연구회, 1961, 24쪽).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수기는 경북고등학교에서 25일, 대구고등학교에서 27일에 일요일 등교를 지시했다고 밝힌다.

시대를 따르는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27일은 대구에서 자유당 연설회가 있었는데 대구고는 수업을 단축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보내 부모님을 강연회에 가도록 권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구고 학생위원장은 27일 밤 경북고 · 경북사대부고 학생대표들과 만나 시위를 모의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1시 시내 반월당에서 시위를 하자고 결의한 후 밤 10시경 헤어졌다.<sup>16)</sup> 그러나 대구고 학생이 미리 준비한 결의문이 한 학생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28일 시위 때 발표되지는 못했다.

28일, 대구고 학생위원장 손진홍은 등교길에 경북고 학생들이 교문을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 상태로 학교에 도착했다. 손진홍은 운동장에서 교장의 훈시를 듣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가자! 가자! 우리도 민주 대열에 합류하자”고 외쳤다. 이에 대구고 1·2학년생 800여명이 교문 밖으로 나오려 시도했으나 교사들의 제지로 약 100명 정도의 학생들만이 학교를 나올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시 교정에 모였다.<sup>17)</sup> 하지만 학교 측의 제지로 오후 2시경이 되어서야 교문을 나와 경북도청으로 향했다.<sup>18)</sup> 학생들은 일요일 등교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도 학무당국으로 가고자 했다. 하지만 반월당을 거쳐 대구매일신문사를 통과할 무렵 미리 사실을 탐지한 남산, 중앙 양 파출소 앞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해산되었다. 그중 일부는 경찰에 연행되었다.

한편 학교에서 탈출하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은 교장의 훈화 도중 제2차 시위를 시도하고 학교를 빠져나왔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의 제지를 피해 전동 골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막다른 골목에 갇힌 수십 명의 학생을 경찰이 곤봉으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대문을 열어 학생들을 숨겨 주기도 했는데 대구고 시위는 골목에서 완전히 진압되었다.<sup>19)</sup> 이날 대구고교생들이 외친 구호는 “학생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인류애를 달라” 등이었다.<sup>20)</sup>

### 경북여자고등학교 · 대구여자고등학교, 일요일 수업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

경북여자고등학교 당국은 27일 오후 연극발표를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28일 등교를 지시했다. 대구여자고등학교 또한 졸업생 송별회와 무용발표회 참석을 이유로 일요일 등교를 명령하였다.

28일 당일 경북여고 당국은 연달아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오후 3시30분 경 전체 교사들이 정문에 나와 학생들의 외출을 막고 학생들을 강당으로 모았다. 이 기회를 타서 학생회 간부들은 시위 단행을 결정하였다. 저녁때가 되어 학교

16) 안동일·흥기범 공저, 97-98쪽

17) 시위에 나온 대구고등학교 학생이 700명이라는 주장도 있다(4월혁명청사편찬회, 『민주한국 4월혁명청사』, 성공사, 1960, 478쪽 ; 조화영 편, 18쪽).

18) 다른 자료는 1시30분에 대구고등학교가 교문을 나섰다고 기술했다(안동일·흥기범 공저, 67쪽).

19) 『대구일보』1960. 2. 29 ; 『동아일보』1960. 3. 1 조3면 ; 손진홍, 「부정에 항거하는 젊음들」, 『達丘』창간호, 대구고등학교, 1960(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57-268쪽). 일부 기록은 시위에 참여한 대구고등학교 학생 총수를 약 700명으로 보고 있다(남옥, 98쪽).

20) 안동일·흥기범 공저, 99쪽

에서는 학생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교시켰으나 학생들은 제일여자중학교 앞에서 모여 시위를 시작하였다. 약 100여명의 학생들은 덕산동을 거쳐 반월당을 지나 대구 여고 학생들과 함께 민주당 강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수성교를 향하여 대열을 짓고 가던 중 낙동강 다방 앞에서 “일요일 수업을 폐지해 달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하였다. 하지만 경찰과 충돌해 삼덕우체국 앞에서 대열은 해산되고 약 30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sup>21)</sup>

### 경북사범대 부속고등학교,<sup>22)</sup> 학원의 자유 외치며 시위

경북사범대부속고등학교는 28일 이전에 이미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사건으로 교내외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다. 경북사대부고 2학년 학생 오석수, 이영길, 유효길은 2월 16일 당시 유행하던 ‘유정천리(有情千里)’ 노래에 그 전날 서거한 조병옥 박사를 애도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를 달아 칠판에 적어 놓았다. 이 노래는 삼시간에 학교 안은 물론 대구 시내로 번져나갔다.<sup>23)</sup>

가련다 떠나려다 해공(海公)선생 뒤 따라  
세상을 원망하랴 자유당을 원망하랴  
장면박사 홀로 두고 조박사도 떠나갔다  
춘 3월 15일 조기선거 웬말이나  
가도가도 끝이 없는 당선길은 몇 구비나  
천리만리 타국땅 벽사죽음 웬말인가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비가 온다  
서름어린 신문들고 백성들이 울고있네<sup>24)</sup>

경북사대부고 학교 당국은 2월 27일 졸업식이 끝난 후 종례시간에 계임을 할 것이라면서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학생들이 등교할 것을 지시하였다. 27일 밤 경북고·대구고 학생들과 시위를 논의한 경북사대부고 학생 간부는 28일 새벽 일찍 학교에 나와 긴급회의를 열고 행동계획을 논의했다. 오전 11시경 학생 간부들은 시위를 하면서도 도지사를 직접 항의 방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때 교무주임이 “젓가락 하나로 태평양 물을 휘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커서 실력을 길러 깨끗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도록 해라.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할 때이지, 데모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학생들을 달랬다. 경북사대부고 학생들은 경

21) 『대구일보』1960. 2. 29 ; 『동아일보』1960. 3. 1 조3면 ; 안동일·홍기범 공저, 100-101쪽

22) 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경북사대부고)는 1951년 대구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로 설립되었으나 1952년 경북대 개교에 의해 학교 명칭을 경북사대부고로 개칭하였다(경북사대부고 홈페이지 참조. <http://www.knu.hs.kr>). 하지만 1960년 당시 언론과 단행본들은 경북사대부고와 대구사대부고를 혼용해서 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북사대부고로 통일한다.

23) 안동일·홍기범 공저, 102쪽

24) 안동일·홍기범 공저, 103쪽

북고와 대구고가 시위를 시작한 시간(오후 1시 30분 경)에 시위에 참가하려했으나 교직원의 감시로 교문을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이에 학생들 240여명은 오후 2시경부터 “일요등교를 해명하라”, “일요등교 명령자 엄벌하라”,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감금당한 학생을 즉시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 본관 2층에서 농성을 시작해 오후 7시에도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했다.<sup>25)</sup> 이들은 “학생인권을 옹호하라”, “도지사나 학교관계 사회책임자는 현 사태를 해명하라”, “여학생 등 검거한 학생들을 빨리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였다.

경북사대부고 학생들은 사복경찰과 교직원들, 학부모들에 의해 운동장까지 끌려나왔으나 완전히 어두워진 오후 8시 경 200여 명이 교문을 빠져나와 삼덕우체국 앞 로터리와 법원 앞 통로를 거쳐 대구매일신문사 앞까지 달려왔다.<sup>26)</sup> 대구매일신문사 앞에서 학생들은 “부고(附高)는 비겁하지 않다.”, “학원은 신성하다, 정치는 간섭치 말라”등의 고함을 질렀으나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밤 7시 40분에는 2학년 학생 약 30명이 도지사 관사 앞에 집결하여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하였으나 즉각 경찰의 출동으로 해산되고 4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계속해서 9시경 자유당경북도당 앞에서 시위를 전개했으나 역시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sup>27)</sup>

한편 이날 대구상업고등학교 학생들도 학내에서 동요를 일으켰으며, 대구중학교에서는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생들을 교실에 몰아넣고 밖에서 열쇠를 채워 학생들을 감금했다. 대구중 학생들은 유리창을 깨며 나오려 시도했으나 학교 측의 제지로 무마되었다.<sup>28)</sup>

## 1960. 2. 29

### 대구상업고등학교, 40여명 시위

29일 오전 9시 경, 대구상업고등학교 1·2학년 학생대표들은 전날 시위로 경찰에 연행된 경북고와 대구고 학생들의 석방을 호소하기 위한 시위를 협의하였다. 첫째 수업시간이 끝나면 전원 운동장으로 나와 삼덕로터리 부근에서 집합하기로 결의했으나 교직원과 경찰의 제지로 10시 30분경 학교를 나온 이는 40여명에 불과했다.<sup>29)</sup> 이 과정에서 경찰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담을 넘다가 학교 벽돌담이 무너지기도 하였다.

25) 일부 기록은 경북사대부고 학생들이 오후 3시부터 농성에 돌입했다고 기술했다(안동일·홍기범 공저, 68쪽).

26) 300명이 학교를 빠져나왔다는 주장도 있다(조화영 편, 19쪽).

27) 『대구일보』1960. 2. 29 ; 『대구매일신문』1960. 3. 1 ; 『조선일보』1960. 3. 1 ; 『동아일보』1960. 3. 1 조3면 ; 박재철, 「역사의 전화점-2.28을 중심으로-」, 『群星』8호, 경북사대부고, 1961(2.28민주의거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271-275쪽). 일부 기록은 오후 8시경 학교를 나온 시 300여 명, 도지사 관사를 포위한 학생은 100여 명이라 했다(남육, 98쪽).

28) 대구중학교 학생관련 보도는 조선일보가 유일하다(『조선일보』1960. 3. 1).

29) 동아일보는 학교를 나온 학생이 40명(『동아일보』1960. 3. 1 조3면), 대구매일은 20명, 잡지 새벽은 20명 정도로 밝히고 있다(남육, 「2.28대구학생데모사건의 진상」, 『새벽』1960월 4월호, 98쪽).

시위는 교직원과 경찰의 제지로 10분만에 해산되었다.

한편 남대구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전원을 비상소집해 대구상고로 물려갔다. 시위 진압 후 각기 교실에 수용된 학생들은 “경관을 물러가라”는 등의 소리를 질렀다. 또한 학생대표 7명은 경찰에서 경북고와 대구고 학생들을 석방치 않는 한 시위를 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경찰과 함께 남대구경찰서에 동행해 형사실을 둘러본 후 구속된 학생이 없음을 확인했다. 양재휘 대구상고 교장은 “학부형은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학생들에게 타일러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sup>30)</sup>

### 대구학생시위 다음 날의, 각 학교 동향

시위 이튿날인 29일, 대구 지역 남녀고등학교엔 전날의 어수선한 공기가 여전히 감돌았다. 경북사범대부속고등학교에서는 일요일 등교를 대신해 29일에 휴교하기로 되어 있어 수업을 하지 않았다. 전날 저녁 시위로 경찰에 연행됐던 14명의 학생들은 교사들의 주선으로 밤 12시 이전에 귀가했다. 한편 3-4명씩 떼를 지어 구석진 곳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에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 학생운영회 부위원장 박재철(2학년) 등 대의원 전원을 아침부터 선도실에 불러들여 놓았다.

경북고등학교 주동자로 연행됐던 이대우 외 전원은 29일 평상시대로 등교해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구내에는 정사복경찰이 배치되어 학생들의 동태를 살폈으며 학생과에서는 전날 시위의 주동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경북고 김영준 교장은 이번 학생들의 행동을 단순한 망동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주동자 처벌문제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북여자고등학교 학생 중 경찰에 연행되었던 22명의 학생들은 28일 저녁 5시 30분경 석방되어 29일엔 전원 등교하였다. 그리고 교장, 교감, 학생과 선생이 대의원들을 교장실에 소집하여 사건발단의 경위를 청취하였다. 경북여고 교장은 시위 학생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시위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학생들은 그 학생의 집이 수성교 방면에 있었을 뿐이라고 가볍게 넘겼다.

대구고등학교는 29일 오전 9시부터 수업을 했다. 정진기 대구고 교장은 864명의 재학생 중 이날 결석자는 50명 정도라고 밝히고, 평소에도 40명에서 60명의 결석자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전 11시 경엔 교장실에서 학생대표들에게 학생들의 동태를 책임지도록 당부하고 도 당국에 출석을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내에는 경찰관이 없었고 평온했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학교 측의 잘못된 처사 때문이라 지적하고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sup>31)</sup>

30)『대구일보』1960. 2. 29 ;『동아일보』1960. 3. 1 조3면

31)『대구일보』1960. 2. 29

## 2) 수기

경북고등학교 학생회,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이강현 편, 『민주혁명의 발자취』, 정음사, 1960(「첨부 자료1」 참조)

% 이 수기는 학생회 명의로 발표되었지만, 실제 서술은 ‘나’를 주체로 서술되어 있으며, 저자는 경북고 시위를 주도한 이대우가 확실합니다.

대구고등학교 학생회, 「부정에 항거하는 젊음들」, 이강현 편, 『민주혁명의 발자취』, 정음사, 1960(첨부 자료1 참조)

% 이 글 역시 대구고등학교 시위를 주동했던 손진홍이 서술.

## 2. 부산 데레사 여고생 시위

% 부산 데레사 여고생들은 4월혁명 과정에서 여러 번 시위를 벌였고, 4월 19일의 시위에서는 총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학생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1) 일지

출전: 출전: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4월혁명사료총집』 1책(일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10

## 1960년 3월 14일

**부산시 진구에서, 고등학생 600여 명 시위**

선거 하루 전날인 14일 부산 시내 고등학교는 갑자기 학생들에게 등교 중지를 지시하였다. 학교 당국과 도 학무당국은 16일까지 신입생 시험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변명하였으나 학생들의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임이 분명하였다. 또한 이날 아침 교통순경들은 헌병들로 대체되었으며 경찰은 최루탄을 준비하였다.

이같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오후 6시 부산의 동래고등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향도고등학교, 북부산고등학교, 영남상업고등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의 학생 약 600여 명이 부산시 진구 범천동 로터리에서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시작했다.<sup>32)</sup> 이들은 무장경찰관 수십명과 대치하면서 범일동 부산철도국 앞까지 약 20분간 시위를 계속하였다.

학생들은 “공산당식의 테러를 우리는 배격한다”, “우리 선배는 썩었다”, “우리가

---

32) 약 10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는 기술도 있다(안동일·홍기범 공저, 94쪽).

민주제단 지키자”, “학도여 일어나라 우리의 피를 보이자”, “학도는 살아있다 민주국가 세우자”, “학원에 강제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뼈라 수백 매를 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강제해산하고 시위에 참가한 여학생 5명을 포함한 16명을 부산진구 경찰서로 연행했다. 시위를 제지하던 경찰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또한 해동고등학교 학생 약 20명은 밤 9시 20분쯤 시내 동성동 현대극장 뒷골목에서 “학도여 일어나라”, “민주주의 수호하자”라는 뼈라를 뿌렸으며 이들 중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또한 부산상고 학생 7-8명과 동아고등학교 학생 3명, 건국고등학교 학생 1명 등은 14일 아침 대신동 운동장 부근에서 시위를 모의했으나 사전 탄로로 경찰에 연행되었다.<sup>33)</sup>

## 1960. 3. 25

### 동성중·고등학생 300여명, 부정선거 규탄시위

오전 9시 20분경<sup>34)</sup> 동성중·고등학생 300여명<sup>35)</sup>이 종업식이 끝날 무렵 교문 밖으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이 외친 구호와 배포한 뼈라는 24일 부산고등학교 학생 시위의 구호와 뼈라와 같은 것이었다. “동포여!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일어나라”, “협잡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다시 하라”, “경찰은 학생학살사건을 책임지라”, “방관자는 비겁자다”, “평화적인 시위는 우리의 권리다”, “경찰은 학생 시위대를 감금하지 말라” 등등 이었다. 시위대는 수백 매의 뼈라를 뿌리면서 ‘전우가’를 부르며 제일제당 앞길로 행진하였다.

경남공업고등학교 정문 앞에 다다른 시위대는 함께 시위에 나서자고 함성을 외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오전 9시 35분경에는 교통부 옆 범일동 구름다리를 지나 동구 시내를 향해 달렸다. 학생들은 좌천동 파출소 근처에서 정·사복경찰관의 제지하자 대부분 해산되어 골목길로 피했다. 그러나 경찰의 경계망을 뚫은 약 100명의 학생들은 다시 삼일극장으로 향해갔다. 삼일극장 앞에서 또다시 경찰의 제지를 받은 학생들은 30여명만이 남아 동부산 경찰서를 향해 달렸다. 그러나 백차와 구급차에 의해 시위대

33) 『조선일보』 1960. 3. 15 조3면 ; 『동아일보』 1960. 3. 15 조3면, 석3면 ; 안동일·홍기범 공저, 94-95쪽 ; 조화영 편, 『4월혁명투쟁사』, 국제출판사, 1960, 212-213쪽

34) 『부산일보』 1960. 3. 25 석3면 ; 『마산일보』 1960. 3. 26 2면 ; 『조선일보』 1960. 3. 25 석3면 ; 안동일·홍기범 공저, 『기적과 환상』, 영신문화사, 1960, 150쪽.

일부 기록은 오전 9시 10분경으로(조화영 편, 『사월혁명 투쟁사 : 취재기자들이 본 사월혁명의 저류』, 국제출판사, 1960, 217쪽), 반면 동아일보는 오전 9시 40분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동아일보』 1960. 3. 26 조3면).

35) 『마산일보』 1960. 3. 26 2면 ; 조화영 편, 217쪽 ; 안동일·홍기범 공저, 150쪽.

부산일보는 200여명으로(『부산일보』 1960. 3. 25 석3면), 조선일보는 약 200명으로(『조선일보』 1960. 3. 25 석3면), 반면 동아일보 등 일부 기록에는 15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동아일보』 1960. 3. 26 조3면 ; 김재희 편, 『청춘의 혈 : 역사를 창조한 젊은 사자들』, 호남출판사, 1960, 77쪽).

는 완전히 해산되었고, 5명<sup>36)</sup>의 학생이 연행되었다.<sup>37)</sup>

한편 오전 10시경 데레사여자고등학교 학생 약 100여명이 부산진경찰서 범일동파출소 앞에서 시위를 했다. 여고생들은 “이유 없이 연행해간 동창생 2명을 즉시 석방하라”고 외쳤다. 데레사여고 학생 2명은 동성중·고등학생들의 시위 현장에 있다가, 시위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 연행되었다.<sup>38)</sup>

## 1960년 4월 19일

### 중·고등학생 중심 시위, 사상자 발생

19일 부산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 시민들이 합세해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오전 10시 반경, 시내 좌천동에 있는 금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들어갔으나 약 50미터 지점 골목에서 경찰 측의 공포로 저지되었다. 오전 11시, 전포동에 있는 부산공업고등학교 학생 약 2천여 명이 서면(西面) 로터리를 거쳐 제일제당 회사 앞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들은 400명의 경찰대와 4대의 소방차가 물을 뿜자 투석으로 대항하다가 해산하였다. 그러나 700여명의 학생들은 다시 모여 철도길을 따라 범일동의 좌천(佐川)지서 앞까지 전진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오전 11시 25분,<sup>39)</sup> 약 2천명의 부산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는데, 약 1천명은 가야동 쪽으로, 다른 1천명은 범일동 쪽으로 시위를 감행하였다. 가야동 방면으로 향한 시위대는<sup>40)</sup> 소방 경찰대와 충돌하여 부근 뒷골목으로 해산하였다.

또한 11시 정각부터는 경남공업고등학교 학생 약 700명이 시위에 들어갔다가 11시 45분경 해산하였다. 그러나 12시 45분부터 데레사여자중·고등학교 학생 약 2천명과<sup>41)</sup> 함께 다시 시위를 시작하여 범일동 자성대파출소 앞에 이르렀다. 오후 1시 30분

36) 『부산일보』 1960. 3. 25 석3면 ; 『마산일보』 1960. 3. 26 2면. 일부 기록은 1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안동일·홍기범 공저, 151쪽).

37) 『부산일보』 1960. 3. 25 석3면 ; 『국제신보』 1960. 3. 25 석3면 ; 『마산일보』 1960. 3. 26 2면 ; 『조선일보』 1960. 3. 25 석3면 ; 『동아일보』 1960. 3. 26 조3면 ; 안동일·홍기범 공저, 150-151쪽 ; 김재희 편, 77-78쪽 ; 조화영 편, 217쪽

38) 『조선일보』 1960. 3. 25 석3면 ; 안동일·홍기범 공저, 152쪽

39) 일부기록에는 오전 11시 25분으로 되어 있고(『조선일보』 1960. 4. 19 석3면, 1960. 4. 20 조3면), 또 다른 기록에는 오전 11시 55분으로 되어 있다(현역일선기자동인 편, 147쪽).

40) 조선일보는 가야동 방면으로 향한 부산상고 학생이 약 5백 명으로 보도하였다(『조선일보』 1960. 4. 19 석3면).

41) 부산 데레사여자고등학교 학생회, 「여학생 데모 행렬 속에서」, 이강현 편, 96-105쪽 ; 『조선일보』 1960년 4월 19일 석간 3면

부산의 데레사여중·고는 선생님들의 암묵적인 동조로 시위를 시작하였다. 여학생들의 시위는 시민들의 열광적인 성원을 받으며 지속되었는데, 이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발포에도 가슴을 내밀고 “우

경, 자성대 로터리에 주저앉은 학생들은 경찰의 시위중지 종용을 거부하고 광복절 노래와 전우의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감행하였다.<sup>42)</sup> 오후 2시경, 경찰은 최루탄을 터뜨리며 공포를 쏘기 시작하였다. 소방차도 물을 뿜어댔다. 경찰의 발포로 인하여 경남공고 3년생 강수영이 즉사하고, 수명이 중상을 입었다. 격분한 군중은 소방차 2대와 쓰리쿼터 1대를 반파시키고 첩첩이 싸인 경찰 방위선을 돌파하여 돌팔매질로 범일동 자성대파출소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경찰의 저지력이 완전히 꺾이자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sup>43)</sup> 시내로 향한 시위대는 좌천동파출소 유리와 동부산서 유리 등을 파괴하고 오후 2시 40분경 부산 소방서 앞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소방차를 배치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투석하여 그들을 후퇴시킨 후 소방차에 발동을 걸고 호스로 소방서 유리창을 파괴하였다.<sup>44)</sup> 이들은 간선도로를 따라 노도와 같이 전진, 부산역전 근처의 영주동파출소까지 왔다가 경찰의 위협사격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sup>45)</sup>

### 3천여 군중 부산진 경찰서 점거, 서면 일대서 격돌

오후 3시경, 부산진경찰서 앞 로터리에서도 6명의 피살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각층 시민들이 합류된 약 3천명의 시위군중은 투석으로 부산진서를 일시에 점거하고 3층짜리 경찰서 건물을 완전 파괴하였다. 이들은 경찰서 앞에 서있던 지프차 2대와 소방차 1대, 증원 무장경찰을 싣고 오던 트럭도 불살랐다. 건물과 넓은 로터리를 빈틈없이 메운 시위대는 경찰의 집단사격 속에서도 분산되지 않고 1시간가량 대치하였다.

기관총과 수류탄까지 동원한 경찰은 서면 일대를 완전히 공포의 거리로 내몰았다. 시위군중은 악을 쓰며 창문 없는 건물 안에 진을 친 발포경찰대를 향해 돌멩이로 대항하였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시위대원은 지체 없이 백색의 앰불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와 병원으로 싣고 갔다. 오후 3시 40분경, 군중들이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하자 실내에 있던 무장경찰대가 일제히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고, 총성은 더욱 심해졌다. 오후 4시 10분경, 피투성이로 나동그러진 피해자는 30여명에 가까웠다. 피를 본 군중의 아우성은 피를 토하는 것 같았다. 4시 40분경, 군중들의 기세가 악화되자 경찰은 주변 일대의 골목과 건물 속에 숨어있는 시위대원을 찾으려 다녔고, 때때로 공포를 쏘아 물려드는 군중들을 물리쳤다.<sup>46)</sup>

---

리를 싸라. 우리를 죽여라”하고 구호를 외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시민들은 일제히 “여학생에게 총을 쏘면 죽여라”고 외치며 경찰에게 투석하였다. 또한 여학생이 총상을 입자 시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여 “여학생도 총에 맞았다. 우리도 가자”며 시위에 합세하였다.(부산 데레사여자고등학교 학생회, 96-105쪽)

42)『국제신보』 1960. 4. 19 석3면

43)『부산일보』 1960. 4. 19 석1면

44)『조선일보』 1960. 4. 19 석3면 ;『동아일보』 1960. 4. 20 조3면

45)『부산일보』 1960. 4. 20, 조3면

46)『부산일보』 1960. 4. 20 조3면

### 동(東)부산경찰서 앞에서도 시위

오후 4시경, 학생보다 20세 전후의 청년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한 시위대가 다시 동부산경찰서 앞으로 쇄도하였다. 경찰서가 포위되자 경찰은 기관총과 최루탄, 소총 등을 쏘았다. 영주동 파출소 앞에서 되돌아선 시위대는 다시 서면 쪽을 향해 달리면서 초량 제1파출소와 제2파출소를 습격하고, 계속 수정동파출소를 습격하여 서류들을 파괴하고 건물 일부를 파괴하였다.

오후 4시 10분경, 범일동 교통부 앞에 있던 시위대 일부가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는 약 2백 명의 시위대와 합류하였다. 이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동부산서로 가자”고 외치면서 뛰어가 동부산서 주변에 머물던 시위대와 합류하였다. 시위대는 오후 5시가 넘은 시각까지 이 주변에서 서성였다. 시위대원 3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sup>47)</sup>

이로 인해 비가 내리는 이날 오후 동부산서를 기점으로 한 북(北)부산 일대에는 한 때 총성과 돌팔매질의 대전으로 공포와 전율의 도가니를 이루었다. 총탄에 맞은 중·경상자는 범일동 주외과로 옮겨졌다. 오후 5시경부터 시위대원들은 해산되고, 6시부터는 중무장한 군인과 탱크도 등장하여 시내를 순회하였다.<sup>48)</sup>

### 실탄 발포로 사상자 수십 명 발생

19일 오전 경남공고와 부산상고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가 끝난 후 오후에 다시 일어난 경남공고 학생들과 데레사여고 학생들은 경찰관의 실탄발포에 격노해 수개 처의 경찰관서를 돌팔매질로 파괴하고 방화하였다. 도중 경찰발포로 10명이 사망하고 52명이 오후 7시 반 현재 총상을 입고 시내 4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에서는 시위에 가담한 학생 및 청년층 50여명을 연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49)</sup> 『서울신문』은 이날 부산에서 시위에 가담한 숫자를 5만-6만으로 보도하였다.<sup>50)</sup> 계엄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이날 시위로 11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찰관도 8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다.<sup>51)</sup>

### 2) 수기

부산데레사여고 학생회, 「여학생 데모의 행렬 속에서」 이강현 편, 『민주혁명의 발자취』, 정음사, 1960([첨부 자료1 참조](#))

47) 『부산일보』 1960. 4. 20 조3면

48) 『조선일보』 1960. 4. 19 석3면 ; 『동아일보』 1960. 4. 20 조3면

49) 『동아일보』 1960. 4. 20 석3면

50) 『서울신문』 1960. 4. 20 2면

51)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148쪽

## II. 4월혁명 참여자의 이후 행적

4월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후 행적은 사실상 천차만별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계속한 사람도 있지만, 군사정권기 여권에서 활동한 사람도 아주 많지요. 특히 4월혁명에 참여한 대학생 중 상당수가 5.16 쿠데타, 유신선포 등에 찬동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변절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대학생 참여자의 경우 저명한 인물이 많아 상대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나 중고등학교 참여자의 경우 그 이후의 행적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월혁명 당시의 일들을 회고하는 글은 많아도 그 이후 자신의 삶을 언급하는 글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2.28기념사업회에서 최근 2016년에 생존에 있는 참여자들의 구술을 정리한 기록이 있네요. 이 구술채록은 구술사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구술자의 전체 생애를 모두 담았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첨부자료 2**」, 『2.28민주운동아카이브』 1권-22인의 경험과 기억-)

[http://www.228.or.kr/front/index.php?g\\_page=service&m\\_page=service04&page=1&bb\\_code=01206qe4a&view=read&wd=19](http://www.228.or.kr/front/index.php?g_page=service&m_page=service04&page=1&bb_code=01206qe4a&view=read&wd=19)

위의 주소(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2」를 활용하면 2.28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의 생애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사이트에는 많은 4월혁명 참여자 구술을 수록. 그러나 항쟁 참여 내용만 주로 있고, 생애사적 정보는 거의 없음.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list/102/1>

여기서는 경북고등학교 시위 주동자 이대우, 대구고등학교 시위 주동자 장주호를 사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대우씨는 일찍 돌아가셔서 자세한 구술자료가 없고, 장주호씨는 「첨부자료 2」 아카이브에 자세한 본인의 일생에 대한 구술이 있습니다(603쪽에서 677쪽 검토).

「**첨부자료 1**」(이강현 편,책)을 보면 2.28 시위 전날 저녁 경북고 이대우의 집에서 이대우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성명서만 발표하고 시위는 하지말자고 주장하자 대구고등학교의 장주호가 이를 반박하며 시위 강행을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켰다는 언급이 나옵니다(35쪽). 물론 이러한 증언들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긴 하지요.

대학생 참여자로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선언문을 작성한 이수정씨와 고대 학보사 기자로 4월혁명에 참여하고, 이후 4월혁명을 기록하는 활동을 한 홍영유씨의 간단한 약력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4인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대우(李大雨, 2.28 시위 주동자, 당시 경북고등학교 학생)

1942년 2월 2일. 경상북도 상주 출생  
1960년 2월 28일. 경북고등학교 학도호국단 학생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시위 주도  
(당시 2학년)  
1961년 3월 경북고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대 정치학과에 여러 차례(7번) 지원했으나 실패(장주효 구술). 뒤늦게 한국외국어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진학. 장주효의 진술에 의하면 2.28 시위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입하는 학생(당시에는 4월에 1학기 시작)들이 주도. 이들은 4월혁명으로 말미암아 고3 생활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대부분 입시에 실패하였다고 함.

1972년 학사, 1974년 정치학 석사, 1981년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박사논문은 「모순론 시각에서 본 모택동과 유소기의 갈등에 관한 연구」  
1978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1990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정교수  
1984-88 부산대 부설 중국문제연구소 소장  
198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 후보로 부산 금정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  
1995 부산대 교수회 회장 역임. 이밖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사로 재직.  
2004년 4.19혁명 공로자로 건국포장  
2009년 9월 사망. 국립4.19민주묘지에 안장

출전: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7466&cid=40942&categoryId=343>  
28) 및 인터넷 신문자료

## 2. 장주효(將周孝, 대구대학교 학생, 2.28 시위 주동)

1942년 중국 봉천성 무순현 고려영자촌 출생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후 귀국, 대구 정착(동인동 1가, 해방골목)  
1949년 중앙초등학교 입학  
1951년 현) 동덕초등학교 임시교사에서 수업. 삼중학교(경상중학교)입학, 중학교에서 이대우를 만남. 1958년 대구고등학교 입학. 1959년 새날동지회 가입. 새날 동지회는 대구지역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합 씨클. 장주효는 2.28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증언.  
1960년 2월 28일 대구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 시위 주도.  
1961년 3월 고교졸업후 서울대 정치학과에 응시했으나 실패. 재수도 실패  
1962년 경북대학교 입학, 현대사상연구회 활동. 해방직후에 나온 좌익 서적 탐독.  
1964년 경북대 내 한일협정반대 시위 참가  
1971년 대구은행 입사 이후 25년간 줄곧 근무  
1978년 경북대 행정대학원 입학  
1979-1980년 낮에는 대구은행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섬유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노

동운동. 구술에서 정확히 실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종의 비밀 민주화운동 조직에 가담하여 위장취업을 통한 노동운동을 실천. 1980년 초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조사받고 혼방됨. 이 조직에는 현재 보수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문수도 포함 됨.

1990년 대구은행 퇴사, 새대구시민회의 대표 취임. 새대구 시민회의는 대구에서 개혁, 진보적 성향을 갖는 인사들이 만든 조직

2000년 철도시설공단 사외 이사, 대구대학 대학원 입학

2010년 대구대학 박사학위 취득

출전: 첨부자료 2, 2.28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아카이브』 1권-22인의 경험과 기억-, 603-677쪽

### 3. 이수정(李秀正,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학생으로 서울대 4.19 선언문 작성)

1940년 2월 1일 경북 청도군 출생

1958 경북중,고등학교 졸업

1960. 4월 19일.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3학년 학생으로 시위 때 4.19 선언문 작성. 많은 사람들이 명문이라고 함.

1962 서울대 졸업

1963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1984 문화방송(MBC) 전무이사

1988 노태우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

1991 문화부 장관

2000년 1월 별세. 장남이 카카오톡 전대표 이석우

출전: 묘지명 <https://blog.naver.com/kjyoun24/60169539796>

### 4. 홍영유(洪榮裕,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 4월혁명에 참여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을 한 인물)

1938년 출생

1958년 고려대 법학과 입학

1960년 4월 18일 고대 학보사 기자로 4.18 의거 참여 및 취재. 4월 25일 교수단 시위 때에는 “전국각대학교수단”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시위 지원 활동

1960년 6월 서울대 법대 재학생이던 안동일과 함께 4월혁명을 정리하는 책인 『기록과 환상』 발행(서울영신문화사). 이 책에는 필명 홍기범 사용.

1963년 육군 보병학교 간부후보생반 수료 후 장교 임관

1966년 장준하의 『사상계』사 근무

1968년 야당인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편집 자문위원활동. 중앙정보부 요인에 게 쫓겨 다니다가 1971년 절필 시작. 이후 개인 사업.

2008년경부터 현업에서 은퇴하면서 4월혁명에 대한 역사적 정리 작업 착수.  
2010년 『4월혁명 통사』(전 10권) 발행. 4월혁명에 대한 현재까지 가장 방대한 역  
사서술이라 할 수 있음.

출전: 굿모닝 충청 인터뷰 기사(2017년 4월 20일)

### III. 수업안 내용에 대한 코멘트.

#### 1. <1차시 수업안>

- 용어문제. 헌법에는 ‘4.19혁명’으로 표현. 대학생이 주로 참여한 4.19 시위만 부각되는 문제점. ‘4월혁명’이 더 타당할 것 같으나 아무튼 교과서에 사용하는 용어가 4.19혁명이라 불기피한 측면도.
- 앞의 촛불시위 부분. 촛불시위에 주로 누가 참여했는지를 질문해 볼 필요도 있을 듯. 4월혁명도 전반적으로는 비폭력적이었지만, 아무튼 이승만 정부의 탄압으로 180여명의 사망자 발생. 촛불시위는 사상자가 전혀 없이 전개. 이 점도 지적할 필요. 유사성과 차이성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
- 부산고등학교 ‘동포에게 호소하는 글’ 세 번째 문단 단군의 자손인 잉상 → 단군의 자손인 이상

% 부산고등학교 호소문은 당시 학생들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위해 이날 시위의 상황도 간단하게 전달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1960년 3월 24일 부산고 시위상황 일지>

출전: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4월혁명사료총집』 1책(일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1960. 3. 24

#### 부산고등학교학생 1천여 명이 시위 감행

오전 8시 50분경 시위를 준비해 온 부산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은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동포에게 호소하는 글’과 결의문<sup>52)</sup>을 낭독하였다.

1천여 명<sup>53)</sup>의 부산고 학생들이 결의문 낭독에 호응하여 시위를 감행했다. 교사들이 교문을 잠그자 부산고 학생들은 담장을 뛰어 넘거나 뒷문을 부수고 오전 9시 10분경<sup>54)</sup> 학교를 벗어났다.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정문 밖으로 몰려가서 안쪽에서 교문을

52) 호소문과 결의문은 부산고등학교 이의남이 작성하고, 3월 20일 부산 시내 고등학교 대표자 모임에서 채택했다(『특집 잔인한 4월-데모의 전말』, 76쪽. 당시 부산고등학교에서 발행하던 교지 『청조』에 실린 글로 추정되나 출처와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 ; 이강현 편, 『민주혁명의 발자취 : 전국 각급학교 학생대표의 수기』, 정음사, 1960, 70-71, 73-74쪽).

53) 치안국에서는 약 200명으로 발표했다(『조선일보』 1960. 3. 24 석3면).

54) 『마산일보』 1960. 3. 25 3면 ; 『동아일보』 1960. 3. 25 조3면, 1960. 3. 26 석4면(『소년동아』) ; 김재희 편, 『청춘의 혈 : 역사를 창조한 젊은 사자들』, 호남출판사, 1960, 76쪽.

부산일보는 오전 9시경으로(『부산일보』 1960. 3. 24 석3면), 조선일보는 오전 9시 15분으로(『조선일보』 1960. 3. 24 석3면), 반면 일부 기록은 오전 9시 30분경으로 기록하고 있다(이강현 편, 64쪽).

부수고 있는 학생들을 도왔다. 교문의 쇠 빗장이 떨어져나가면서 학생들은 일제히 거리로 몰려나왔다. 학생들은 뼈라를 뿌리며 “평화적인 시위는 우리의 권리다”, “공명선거 다시 하자”, “동포여 잠을 깨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2학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이 시위는 3월 17일부터 5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고등학교<sup>55)</sup> 학생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준비해온 것이었다.<sup>56)</sup>

시위는 세 갈래로 나뉘어 서면으로 향했다. 뒷문을 부수고 제일 먼저 나간 제 1진 약 300명, 정문으로 나온 약 700명 중 부산진역 앞에서 서면으로 향한 제2진, 그길로 경남여고 쪽으로 향한 제3진이였다. 제1진은 부산진역 앞에서 동부산경찰서 경찰의 제지를 받아 초랑으로 방향을 틀어 부산역 광장으로 향했다. 이들은 부산역 광장으로 가는 길에 조흥은행 부산남지점 앞에서 100여 명의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20여 명의 학생들을 연행했다. 학생들은 부산역 행을 포기하고 오전 11경 학교로 돌아갔다. 제2진과 제3진 700여 명은 부산진역 광장에 도착하기 전 동아중학교 앞길에서 경찰 백차의 호위를 받으며 고급택시로 이곳을 통과하던 마산사건 국회조사단 일행과 마주쳤다. 국회조사단은 동래 숙소로부터 도청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학생들은 차를 향해 투석하는 한편 뼈라를 뿌리면서 차를 제지시켰다. 황성수, 윤명운 의원 외 2명이 탄 고급택시 2대와 백차는 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유리가 파손되었다.<sup>57)</sup> 이 일로 부산진역 근처는 30분가량 혼잡을 빚었다.<sup>58)</sup>

시위대는 부산진역을 지나 동부산 경찰서를 통과하려 했다. 이 때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하려 했다. 학생들도 이에 대항하여 경찰의 곤봉을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했다. 제2진인 약 300명의 학생들은 목적지인 서면을 향했고, 제3진 300여 명의 학생은 경찰을 피해 경남여고 쪽으로 향했다. 경남여고생들의 호응을 구하기 위해 교문 앞에 이르렀을 때, 경남여고 교사들은 여학생들을 강당에 집합시키고 문을 잠갔다. 서면 쪽으로 향한 제2진은 문현동에 있는 부산공고와 전포동에 있는 경남공고 정문 앞에 머물러 “마산사살 사건에 경찰관이 책임을 지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잡자” 등의

55) 시위는 부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동고등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남성여자고등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부산사범고등학교 등이 함께 준비했다. 경남여자고등학교와 경남공업고등학교는 사정에 의해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고, 경남고등학교는 시위 자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특집 잔인한 4월-데모의 전말』, 76-77쪽 ; 이강현 편, 73쪽).

56) 『부산일보』 1960. 3. 24 석3면 ; 『국제신보』 1960. 3. 24 석3면 ; 『마산일보』 1960. 3. 25 3면 ; 『동아일보』 1960. 3. 25 조3면, 1960. 3. 26 석4면(『소년동아』) ; 『조선일보』 1960. 3. 24 석3면 ; 안동일·홍기범 공저, 146-147쪽 ; 『특집 잔인한 4월-데모의 전말』, 76-77쪽 ; 이강현 편, 64, 70-74쪽 ; 김재희 편, 76-77쪽 ; 조화영 편, 『사월혁명 투쟁사 : 취재기자들이 본 사월혁명의 저류』, 국제출판사, 1960, 214쪽

57) 부산고등학교 학생들은 국회조사단 차에 투석하였지만 그것이 국회의원 일행인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하였다. 다만 시위대 속을 억지로 밀고나가려는 고급차를 보고 분개한 나머지 약간의 투석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시위에 가담했던 학생은 “만약 민의원 조사단일행의 차인 줄 알았더라면 환영과 당부를 했을 터”라면서, 깊이 사과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하였다(『동아일보』 1960. 3. 26 조3면).

58) 『부산일보』 1960. 3. 24 석3면 ; 『서울신문』 1960. 3. 24 석3면 ; 『마산일보』 1960. 3. 25 3면 ; 『조선일보』 1960. 3. 24 석3면 ; 『동아일보』 1960. 3. 25 조3면, 1960. 3. 26 조3면, 석4면(『소년동아』) ; 안동일·홍기범 공저, 147-148쪽 ; 이강현 편, 65-66쪽 ; 김재희 편, 77쪽 ; 조화영 편, 215-216쪽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합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의 저지로 타교생의 합세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위대는 서면일대를 돌고 시내로 향했다. 삼일극장 앞을 지날 무렵 출동한 경찰들이 곤봉으로 시위대 진압했다. 학생들은 근처 데레사여자고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다 오전 11시 10분경 결국 학교로 돌아갔다.<sup>59)</sup>

### 경찰의 진압과 부산고 시위대의 자진 해산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소방차를 비롯하여 거리에서 징발한 트럭 등을 이용해 학생들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또한 시위를 해산시키면서 200여 명의 학생들을 연행했다. 수정동 파출소에는 20여 명의 학생이 연행되었다. 그러자 일부 시위대는 수정동 파출소를 포위하고 “학생들을 석방하지 않는 한 시위대는 해산할 수 없다”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귀교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을 석방했다. 영주동 파출소에 연행되었던 20여 명의 학생들도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석방되었다.<sup>60)</sup>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수십 명의 정·사복경찰관과 마주쳤다. 경찰은 경찰차 마이크를 “학생들 조용히 돌아가시오, 잘못하면 후회한다”는 경고방송을 했다.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과,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교사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학생들은 “경찰관은 학교에서 물러가라”, “민주학원에 경찰관 출입이 웬말이냐”고 외쳤다. 학생들이 경찰이 학교에서 나갈 때까지 운동장에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경찰은 철수했다.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가고, 시위의 주모자들은 자진해서 교장실로 갔다. 교장실에는 20여 명의 형사도 있었다. 각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학생들은 교장실에서 벌인 교섭에 따라 훈방되었다.<sup>61)</sup>

오후에도 서면 일부 지역에서 경찰의 비상경계가 계속되었다. 오후 2시경<sup>62)</sup> 부산상업고등학교 학생과 부산고 학생 100여명이 시내 부전동 제일제당 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기위해 범천동 로터리 일대와 전포동 광장에 집결하는 도중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sup>63)</sup>

59) 『부산일보』 1960. 3. 24 석3면 ; 『마산일보』 1960. 3. 25 3면 ; 『동아일보』 1960. 3. 25 조3면 ; 「특집 잔인한 4월-데모의 전말」, 78쪽 ; 이강현 편, 66-68쪽 ; 김재희 편, 77쪽 ; 안동일.홍기범 공저, 148쪽

60) 『부산일보』 1960. 3. 24 석3면 ; 『조선일보』 1960. 3. 24 석3면 ; 『동아일보』 1960. 3. 25 조3면, 1960. 3. 26 석4면(『소년동아』) ; 김재희 편, 77쪽 ; 이강현 편, 67쪽 ; 조화영 편, 216쪽

61) 『부산일보』 1960. 3. 24 석3면 ; 『국제신보』 1960. 3. 24 석3면 ; 『동아일보』 1960. 3. 25 조3면 ; 「특집 잔인한 4월-데모의 전말」, 78쪽 ; 이강현 편, 68쪽 ; 안동일.홍기범 공저, 148쪽 ; 조화영 편, 216쪽

62) 『부산일보』 1960. 3. 25 조3면.

일부 기록은 오후 1시 10분경으로 기록하고 있다(안동일.홍기범 공저, 148쪽).

63) 『부산일보』 1960. 3. 25 조3면 ; 안동일.홍기범 공저, 148쪽

%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4월혁명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 그러나 4월혁명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생뿐만이 아니라 도시빈민(구두땀이, 실업자, 상정 점원, 일용직 노동자) 등 일반 시민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등 나이든 분들도 인상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지적해줄 필요도 있어 보임.

### 4월혁명 사망자 통계

| 4월혁명 사망자 직업 분포 |      |
|----------------|------|
| 직업             | 사망자수 |
| 국민학생/중학생       | 19   |
| 고등학생           | 36   |
| 대학생            | 22   |
| 회사원            | 10   |
| 하층노동자          | 61   |
| 무직자            | 33   |
| 미상             | 5    |
| 계              | 186  |

%% 학생(초등부터 대학생) 사망자는 모두 77명. 전체 사망자의 절반도 되지 않음. 반면 하층노동자, 무직자가 절반 이상.

%% 4월혁명 과정에서 고학생, 도시빈민층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는 오제연 교수의 논문 참조. 오제연,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고학생과 도시하층민-」, 『역사비평』 봄호(106호), 2014. (첨부자료 3)

%% 마산에서는 4월 24일 할아버지 시위, 4월 25일에는 할머니와 여성들의 시위. 촛불항쟁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들을 주목하고, 이야기할 필요성도 있을 듯.

-마산 할머니 시위에 대해서는 줄고

홍석률, 「기록에서 지워지는 여성들: 마산할머니와 4월혁명」, 『민주주의 잔혹사』(창비, 2017) 참조.

마산 할머니 시위 광경(4월 25일 교수단 시위보다 약간 앞서 전개됨. 구호가 교수단보다 훨씬 선명.



## 2. <2차시 수업안>

- “6. 이기붕 사퇴”. 4월 23일 이기붕은 정확히 사퇴를 피력한 것이 아니라 공직 사퇴를 “고려”하겠다고 하여 시민들의 분노 유발. 나중에 사퇴로 정리. 이는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있으니 차라리 같은 날 4월 23일 장면이 자신의 부통령직 사퇴와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듯. 아니면 1960년 6월 15일 국회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로 교체.
- “7. 마산에서의 시위”. “마산시민들이 3일 연속으로 시위를 벌임”으로 수정.

